

목소리에 관한 이야기

▣ 녹음된 목소리는 왜 자신의 목소리와 다르게 들리는 것일까

누구나 한번쯤은 녹음된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는 깜짝 놀란 일이 있을 것이다. 자신이 생각하기로는 더 멋진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들어보니 “영 아니올시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자신의 목소리이다. 즉 다른 사람은 자신의 목소리를 그렇게 듣고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왜 자신이 생각하는 목소리와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 자신이 듣는 목소리는 두개골로 연결된 청신경(聽神經)에 의해 듣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실제 목소리보다 울림이 있는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다. 사람의 목소리는 기체가 내는 파장이 고른음과는 달리 여러 가지 파장이 섞여 있다. 즉, 성대에서 낸 작은 소리를 이나 입 속에서 공명시킴으로써 큰 소리를 내는 것인데, 이 때 몸의 진동과 밖으로 나온 음의 진동이 자기 목소리로 들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목소리는 귀 근처에 있는 몸의 진동으로 저음부가 강조되어 실제보다 낮게 들린다.

▣ 헬륨을 마시고 말을 하면 목소리가 바뀌는 이유

원소기호 2번인 헬륨은 공기 중에 있는 기체에서 수소 다음으로 가볍다. 공기의 성분은 질소(70%), 산소(23%)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헬륨에 비해 상당히 무겁다. 헬륨의 밀도가 공기의 평균 밀도보다 가볍기 때문에 헬륨만 따로 모아 두면 위로 떠오르는 현상이 나타난다. 풍선이나 기구 등이 뜨는 것도 이런 헬륨의 특성 때문이다. 헬륨을 마시면 우리 목소리가 바뀌는 것은 헬륨 풍선이 공기에 뜨는 것과 마찬가지로 헬륨의 ‘가벼운’ 특성 때문이다. 소리의 진동수는 공기의 밀도에 반비례하며 공기 속 밀도가 높으면 천천히, 밀도가 낮으면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다. 또한 소리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에 비례해서 진동수도 커지는데, 진동수가 커지면 소리의 크기는 그대로지만 높은 음이 난다. 평소처럼 ‘도’ 음을 내도 ‘파’나 ‘솔’ 음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2.7~3배까지 높은 음이 나와야 하지만 헬륨을 마신 상태라도 입안의 공기 100%가 헬륨은 아니기 때문에 3배까지 높아지지는 않는다. 보통 일반 상태보다 1.5~2배까지 높은 음이 나게 된다.

▣ 이성에게 매력적인 목소리로 말하기

일반적으로 남성은 부드러운 저음의 목소리, 여성은 비음이 살짝 섞이거나 허스키한 듯 착 감기는 목소리가 섹시하다는 선입견이 있다. 프랑스의 정신과 의사 파트릭 르무안 씨의 책 ‘유혹의 심리학’에 따르면 네

오래 전에 라디오에 출연한 적이 있었다. 한 지방 라디오방송에서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들에게 학과를 소개하는 코너였는데, 내가 전공한 산업공학과에 대한 소개를 부탁받았다. 방송이 있던 날 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나의 목소리를 듣고 녹음된 내 목소리에 깜짝 놀랐더랬다. 요즘도 취재를 위해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고 다시 들어보곤 하는데, 역시나 내 목소리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첫인상을 결정짓는 요소 중에 외모뿐만 아니라 목소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 동안 목소리에 대해 별로 신경을 써본 적이 없기는 하지만 목소리가 좋으면 왠지 더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곤 하니, 그 사람의 첫인상에서 목소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할 법도 하다.



덜란드 레이덴대의 연구진이 남성들의 음성만 여성들에게 들려주고 신체적 특징을 연상하게 했더니 높은 테너보다 저음의 바리톤 남성이 키가 크고 근육질일 것이라고 대답했다. 르무안 씨는 남성들은 변성기를 거치면서 목소리가 낮아지는데 테너는 사춘기의 변화를 겪지 못한 미성숙한 남성이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성(性)적 매력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여성의 경우는 명료하고 툭툭 끊어지는 소리보다 여운을 남기는 듯한 소리가 섹시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음성 전문가들은 섹시한 목소리가 꼭 이성에게 호감을 주지는 않으며 현대의 좋은 목소리에 대한 정의와도 거리가 있다고 한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연구진은 테이트를 나누고 있는 남녀의 대화를 분석한 결과, 한 가지 톤보다 목소리의 높낮이를 다양하게 변화시키며 말하는 여성이 남성에게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 효과적인 목소리 관리법

목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생활 관리법도 필수이다. 특히 목을 피로하게 하는 습관 대신 목의 부담을 덜어주는 습관을 갖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하루 6 ~ 10잔 이상 물을 마신다.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면 성대점막이 촉촉해져 쉽게 상처가 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 술·카페인 음료·유제품은 NO

술·카페인 음료·유제품은 체내에서 수분을 빼앗아 건조한 성대를 만드는 원인이 된다. 말을 많이 하거나 노래를 부르기 2~4시간 전에는 이들 음료를 피해야 한다.

- 생리·임신 중에는 목소리 사용 줄이기

여성의 경우 생리직전, 생리 중 그리고 임신기간에는 성대의 혈액이 멎치게 되므로 말을 많이 하거나 노래를 하는 등 성대에 지나친 자극이 가해지는 것을 피해야 한다.

- 헛기침은 참도록

큰 소리로 호탕하게 웃는다거나 헛기침도 목에 무리를 준다. 헛기침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성대 점액이 빠져나가 목이 갈끔해지는 느낌이 든다. 하지만 곧 다른 점액이 그 자리를 메워 다시 헛기침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뿐이다. 